

# 도시 속 자연마을 거주민의 장소감 비교연구: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마을 어른들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송하인\*

## A Comparative Study on the Sense of Place for Residents of Natural Village in the City: For Adults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Nodae Village in Nam-gu Gwangju Metropolitan City

Hain Song\*

**요약:** 본 연구는 사라져가는 도시 속 자연마을인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마을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의 장소감을 인류학적 연구방법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대마을에 거주하는 어른들과 초등학생들은 한 장소에 대해 서로 다른 장소감을 가지고 있었다. 어른들의 장소감은 공동체적 삶과 관련되었고 초등학생의 장소감은 개인적 삶과 관련 깊었다. 이를 통해 지리교육에서는 학생 중심의 공간적 범위를 교육과정, 수업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어른들과 초등학생은 공통적으로 이주민과 관련된 장소에 부정적인 장소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근래에 유행하는 마을공동체,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거주민과 이주민의 심리적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적 삶 속에서 역사지리적 관점으로 사라져가는 도시 속 자연마을의 원형을 되살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어른들과 초등학생의 장소감 비교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노대마을, 장소감,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지리교육

**Abstract :** This study looked at the place of residents living in Nodae Village, Nam-gu, Gwangju, a natural village in a disappearing city, as an anthropological study metho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adults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living in Nodae Village had a different sense of place for one place. Adults' sense of place was related to community life,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nse of place was deeply related to personal life.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student-centered spatial scope to curriculum and classes in geography education. Second, adults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d a negative sense of place in common with immigrants. Through this, measures are needed to overcome the psychological disconnection of residents and migrants in recent village communities and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revived the archetype of natural villages in cities that are disappearing from a historical and geographical perspective in the rapidly changing urban life and provided various implications to us living in modern times through comparing the place sense of adults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Key Words : Nodae village, Sense of place, Urban regeneration, Village community, Geographical education

\*광주진남초등학교 교사(Teacher, Jinnam Elementary School in Kwangju, songhain@hanmail.net)

## I. 서론

본격적으로 지리교육이 시작되는 시기는 초등학교 3학년이다. 1학기 첫 번째 단원의 내용은 우리마을 또는 고장의 모습을 자유롭게 그려보고, 서로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고장에 대한 서로 다른 장소감을 탐색하는 것이다(교육부, 2021). 이는 장소감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이를 집단의 장소감 공유로 이끌어내는 것이 초등지리교육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김영현, 2019). 이때 장소감은 사람들이 장소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애착을 의미한다(Agnew, 1987; Cresswell, 2004에서 재인용). 또한 장소감은 인간이 특정 환경에 묶이도록 만드는 감정적이며 경험적인 흔적이기도 하다. 우리는 장소로부터 느끼는 감정을 살펴봄으로써 장소가 무엇인지, 장소가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울러 장소가 우리를 규정하는 방식까지도 그려볼 수 있다(Aderson, 2010). 장소감은 특정한 시기에 완벽한 형태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소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발달되어 가는 개념이다(박니은, 2017). 이러한 장소감은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원천이 된다(Relph, 1976). 장소는 인간실존의 공간으로서 개개인의 삶과 상호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주관적 의미가 부여된 사회공간(social space)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장소에 대하여 인간은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비유컨대, 인간이 장소이며, 장소가 곧 인간인 것이다(남상준, 2003). 이처럼 인간의 정체성 형성에 장소는 필수적인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다(박명화, 2017). 장소와 정서적인 연계를 맺는 것이 장소감이라고 할 때 장소감이 올바르게 형성되면 자신에 대한 이해, 지역에 대한 이해, 세계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생각을 근거로 오래전부터 인간주의 지리학에서는 관심을 공간에서 장소로 전환하였다. 인간주의 지리학에서 장소연구에서 주목하는 ‘의미있는 장소’란 인간이 장소내부에 존재하면서 오랜 시간동안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박정주, 2009). 따라서 지금까지의 지리교육이 인지적 측면 중심의 교육에 치우쳤다면, 앞으로의 지리교육은 장소와 장소감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한 정서교육에 관심을 가질 것을 주장한다(신재철, 2008; 박명화, 2017). 이에 따라 지리교육에서는 초등학교생들이 실제 살아가고 있는 장소에서의 장소감과 관련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그 연구를

장소와 관련하여 대략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학생에 대한 연구이다(정진규, 2014; 김혜진, 2018; 황인, 2021). 황인(2021)은 다른 지역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주한 학생들의 세종시에 대한 장소감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다수의 학생들이 세종시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생활세계의 형성 양상이 이전과는 달라진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둘째, 촌락 속에서 살아가는 학생에 대한 연구이다(김영현, 2019). 김영현(2019)은 촌락지역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생들의 장소감을 살펴보았는데 학생들은 마을의 범위를 아파트로 한정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초등지리교육에서는 실제 학생들이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을 반영한 교육과정, 수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학교공간에 대한 연구이다(이예자, 황희준, 2014; 김일두, 남상준, 2015). 김일두, 남상준(2015)은 어린이가 대부분의 일상을 함께하는 주요 공간인 학교 속에서 어린이들이 형성한 사적 맥락으로서의 장소감은 자유, 소통, 비밀, 관계라는 맥락적요소가 있고 장소감을 통해서 공간과 어린이의 이해가 초등지리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초등학생들의 장소감에 대한 연구는 그들의 일상생활이나 장소에 대한 경험을 알아볼 수 있는 심상지도, 일기 등을 분석하는 질적연구로 주로 진행되었다(김민성, 윤옥경, 2013). 이에 비해 연구자가 한 마을에 들어가 그 마을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주민으로서 초등학생의 장소감을 연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초등지리교육에서 장소감의 시작은 학생의 주위에 있는 마을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때 마을은 ‘삶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물질적 공간’이면서 ‘하나의 공동체적 삶의 단위’로 정의할 수 있다(차철욱 등, 2017). 민속문화의 공간적 축소판은 ‘마을’이라 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문화적 전통성을 온전히 고수하는 마을을 일러 전통마을이라 지칭하지만, 전통마을에는 전통문화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전통마을에도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끊임없이 교차하면서 생성, 발전의 과정을 밟고 있다(서해숙, 2014b). 전통마을은 전통적요소가 있는 마을을 일컫는다. 이에 비해 자연환경이 강조되어 전통이 있는 마을을 자연마을이라고 한다. 즉 전통마을과 자연마을은 같은 개념이다. 자연마을은 자연조건에 의해 마을의 영역이 형성되면서 전통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비율이

상의 씨족과 구체적 입향조를 가진 마을로 급속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마을로 정의할 수 있다(신진동 등, 2008). 이처럼 자연마을은 지역을 기반을 둔 공동체가 사회, 경제, 문화적 관계를 형성하고 일상생활을 영유해가는 장소이다. 그런데 도시 속의 자연마을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 지역에 대한 정체성이 함께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리교육에서는 사라져가는 도시 속 자연마을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거주민으로서 학생들의 장소감을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을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을의 장소성은 물론 그 안에 살고 있는 개인과 집단, 즉 주민들의 인식체계가 역사적 시간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였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박양리,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라져가는 도시 속 자연마을을 역사지리적 관점으로 살펴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주민들의 장소감을 인류학적인 연구방법을 동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라져가는 마을의 역사지리적 맥락을 체계적으로 기록함과 동시에 학생의 삶을 반영하는 지리교육과 지리수업, 근래에 유행하는 마을공동체와 도시재생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받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노대마을의 입지 및 특성

#### 1) 노대마을의 위치와 자연환경

우리나라 옛 마을들은 산록완사면에 발달했다(이전, 2011). 장기간에 걸친 지질 활동과 침식 작용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지형에서 산은 윗부분의 급경사부와 아랫부분의 완경사부가 이어지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급경사부에는 숲이 나타나고, 경사가 변하는 곳에 무덤이 있으며, 완사면의 말단부이며 산이 평야와 만나는 지대에 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이도원, 2004). 노대마을은 현재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동에 위치한 도시 속 자연마을<sup>1)</sup>이다. 광주의 무등산에서 남서쪽으로 이어지는 해발 415m의 분적산 서쪽의 완만한 사면부에 위치한다. 북쪽은 화순군 세량리와 경계지역이고, 서쪽은 나주시와 근접해있으며 남북으로 대촌천이 흐르고 있다. 대촌천은 분적산의 노대마을에서 발원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행암동, 입암동, 지석동을 지나 영산강의 큰 지류 중의 하나인 지석강에 연결되는 하천이다(정일, 2006). 광주에서 두번째로 큰 분적산(414m)이 마을의 대부분을 감싸고 있고 전면부는 약간의 평야가 있다. 남쪽으로는 쥐봉에서 남서쪽으로 뻗은 산 능선을 따라가면서 진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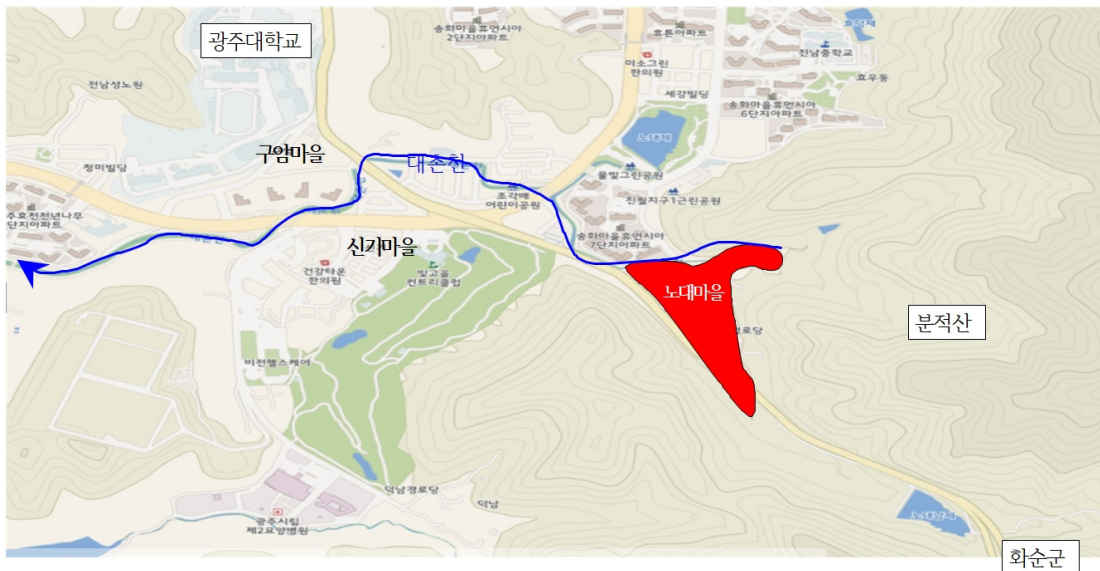


그림 1. 노대마을의 위치

출처 : 네이버지도 재구성.



그림 2 노대마을 입구의 고인돌과 조선 후기 효우동면이 나타난 지도

출처 : [https://blog.daum.net/kbs1030/799\(좌\);](https://blog.daum.net/kbs1030/799(좌);)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해동지도」 - 조선 후기 노대동의 위치 표시(우).

동과 구분되고 광주대학교 남쪽에서 행암동의 구암마을과 접하고 있다.

노대마을, 신기마을, 구암마을에는 선사시대 유물인 고인돌이 여럿 존재한다. 풍부한 수량, 딸감을 얻을 수 있는 산, 약간의 평야라는 자연환경은 오래전부터 이곳에 마을이 존재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조선후기에는 노대곡(老大谷)이라고 불리웠고 광주목 효우동면(孝友洞<sup>2</sup>面)에 속하였다. 1914년 조선총독부의 행정구역통폐합에 따라 광주군 효천면(孝川面)이 되었다. 1935년 광주읍 확장으로 효지면으로 속해있다가 그해 광주읍이 광주부로 승격되고 광주군이 광산군으로 개칭될 때 광산군 관할이 되었다. 1995년 서구에서 남구가 분구되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동에 포함되었다(광주광역시 남구문화원, 2002).

노대동의 지질구조는 문화층 일대에 편마암 계통의 많은 석재들이 분포하고 있어 생활터전이 형성하기에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다(정일, 2006). 일찍이 마을 사람들은 산을 개간(開墾)하고 논, 밭을 만들어 생활하였다.

토질이 너무 안좋다. 완전히 개간해서 만든 곳이다. 흙을 조금만 걷어내면 다 자갈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퇴비를 많이 날랐다. 지게로 리어카로, 경운기로 지금의 휴면시아 5차 아파트까지 퇴비를 날랐다.

(2020년 11월 03일 윤□□)

퇴비를 엄청 날랐다. 구암마을, 신기마을 이런곳은 전부 참외를 심었다. 내가 효덕초등학교 다닐때보면 들판이 온통 참외로 뒤덮인 노란색이었다. 그쪽은 밭농사를 하

고 3개의 저수지 근처는 논농사를 위주로 하였다.

(2020년 09월 24일 윤△△)

노대마을의 물길은 노대남제에서 내려오는 물길과 마을 안쪽에서 흐르는 대촌천의 발원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 두 물줄기가 현재 휴면시아 7단지 아파트 앞에서 만난다. 행암동, 임암동, 지석동을 거쳐 영산강의 큰 지류 중의 하나인 지석천으로 통합된다. 산록완사면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퇴적층이 마을 앞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과거 노대마을 근처에는 현재의 광주대학교 앞에 있었던 구암마을, 현재의 노인건강타운 위치에 있었던 신기마을, 현재의 식자재마트가 있는 곳에 대동마을이 존재하였다. 도시 속 자연마을이 그렇듯 광주대학교(1980), 빛고을 노인건강타운(2009), 송화마을휴면시아 아파트(2010),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2014) 등이 세워짐으로써 현재의 구암마을은 마을 지명만 존재한다. 신기마을은 기존에 있던 마을과 가까운 곳에 원주민은 사라지고 이주민들에 의해 도시형타운하우스 형태로 새롭게 형성되었다.

예로부터 평평하고 비옥한 평야지대나 물을 얻기 용이한 골짜기가 척박한 산지보다 인구가 훨씬 조밀하였다(이준선 등, 2011). 풍부한 수량과 평야로 인해 이 지역에서 노대마을은 인구가 가장 많은 마을이 되었다. 노대마을의 인구수는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120호 가구 정도 있다가 현재는 약 70호 살고 있다. 최근에는 외지인들이 집과 토지를 매입하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고 빈집, 상업시설 등이 늘어 나고 있는 추세이다. 대부분 인구는 60대 이상이며 초등학교 학생은 ○○초등

학교에 다니는 학생 한 명이 유일하다.

## 2) 노대마을의 지명과 입조

지명(地名)이란 모든 지리적 실체물(geographical entity)에 대한 이름의 총칭이다. 지명은 특정의 장소를 타의 장소와 구별하여 복수의 사람들 사이에 정보교환을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지명에는 고유성이 있고 개성이 있다(한국지명학회, 2007). 지명은 자연환경, 인문환경,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영향, 정치적 이유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탄생 된다. 노대마을이라는 지명의 유래는 두 가지 의견이 있다. 그 첫째는 석림촌(石林村)<sup>3)</sup>에서 이사온 김해 김씨 노암(老庵) 김재선(金再善)을 ‘노대(老大)한 유자(儒者)’라고 불러 촌명이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광주광역시 남구문화원, 2002).

두 번째는 자연환경과 관련이 깊다. 1789년 호구총수에 노대곡(老大谷)이라 기록하고 있지만 읽을 때는 노대실로 읽는다. 노대실의 원래의 의미는 산이 갈라진 곳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산의 옛 말 중에 ‘갈’이 있다. 산골짜기 마을= 갈래+실>갈애실>갈대실>갈(=갈대=蘆>노>老)+대>大+실) 谷으로 변천하였다.<sup>4)</sup>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갈’을 ‘갈대’로 보고 ‘蘆’를 생각했으나 글자가 단순화되어 ‘老’자로 대신하였고, 갈대의 ‘大’자를 살려 큰대(大)를 차용했으며 ‘실’은 골짜기를 의미하는 곡(谷)으로 표기한 것이다(광주광역시 남구문화원, 2002:

236). 실, 골은 곡(谷)에서 파생한 것으로 산골에 있는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골(谷)을 의미하는 데서 유래된 이름임과 동시에 마을의 뜻인 ‘고을’이 ‘골’로 되어 생긴 땅 이름이다. 실(室)은 곡(谷)을 의미한 옛말인데 산골짜기의 작은 내를 말한다(문병선, 2007). 곡(谷)은 골짜기라고 불리 우는 좁고 길게 움푹 들어간 지형으로 너비보다는 길이가 현저하게 길고 그 속으로 하천이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다(박병철, 2004).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의 자연 속에 곡(谷)의 이름으로 입지하고 있는 자연마을은 주변 지형, 지세에 맞는 나름의 대응방식으로 입지하고 있을 것이며 평지나 하천에 입지한 마을과는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다(문병선, 2007). 대체로 농촌은 산을 등지고 앞으로 냇물과 들을 바라보는 배산임수지역, 즉 한 방향이 터져 들로 이어지고 나머지 세 방향은 산지나 구릉으로 둘러싸여 이른바 ‘골’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런 곳은 식량, 식수를 얻기 쉽고 농경지를 아낄 수 있는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겨울이 길고 추운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이인화, 2006). 노대마을은 조선후기에 노대곡, 노대실 등으로 불리었고 대부분 곡의 지명을 가진 대한민국의 자연마을과 동일하게 다랭이 밭, 논과 물길, 작은 평야 등의 경관(landscape)이 존재한다. 이러한 정황상 노대마을의 지명은 자연환경과 관련이 깊을 가능성이 높다.

노대마을은 현재 김해 김(金)씨, 함안 윤(尹)씨, 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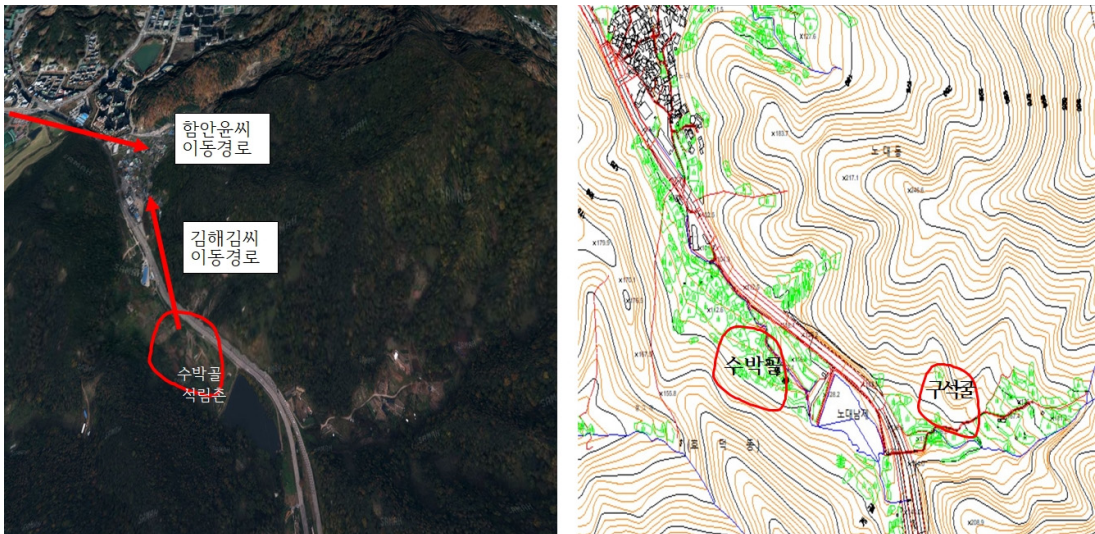


그림 3. 노대마을의 입조와 지형도

출처 : 구글위성지도에 이동경로 표시(좌);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 Ver2.0(1:5000)에 표시(우).

박(朴)씨 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이 마을에 입조한 씨족은 함안 윤씨들이다. 함안 윤씨들은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 윤씨 가문이다. 당시 폐비 윤씨 가족 중에서 자손들이 남양주에서 광주로 내려와 신기마을, 구암마을에 터를 잡았다. 이후 윤씨들은 신기마을과 구암마을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노대마을로 분촌을 하였다. 조선 중후기 종족마을의 성장은 모촌과 분촌의 분화를 보였다. 종족 마을들은 인구 규모가 커지고 자손이 분가함에 따라 인근 지역에 분촌을 발달시키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반촌적 배경의 종족 마을

들은 모촌 인근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가 많으므로 분촌의 형성은 모촌으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곳에 이루어졌다(이준선 등, 2011). 함안 윤씨들은 신기와 구암마을과 가까운 노대마을에 터를 잡았고 현재 마을의 남쪽 부분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비해 김해 김씨는 노대마을의 북쪽에 있는 석림촌에서 내려와 터를 잡았다. 현재는 마을의 북쪽 대부분이 김해 김씨들이 거주하고 있다. 다음은 각각의 입향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세거비이다. 밀양박씨는 노대마을의 중앙에서 위쪽 산아래 쪼메 소수가 거주하고 있다. 오랫동안 함안 윤씨와 김해 김씨



그림 4. 김해 김씨 세거비와 함안 윤씨 세거비

출처 : 2020년 11월 저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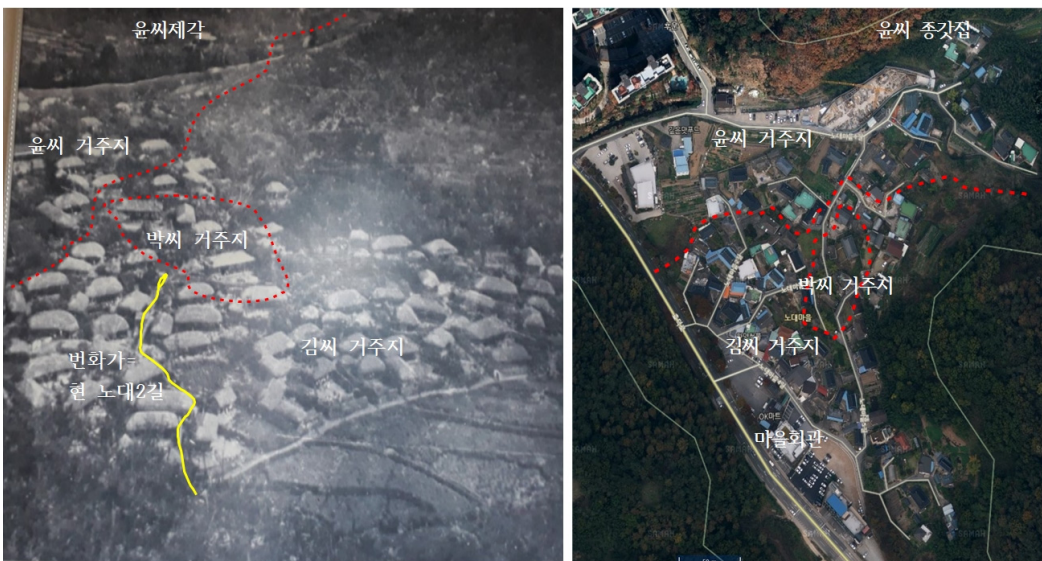


그림 5. 1960년 이전 노대마을모습과 2019년 노대마을 위성지도 사진

출처 : 2020년 12월 노대마을 회관에서 수집 - 과거 씨족에 따른 거주공간표시(좌); 네이버 위성지도 - 현재 씨족에 따른 거주공간표시(우).

라는 두 씨족 공동체가 마을의 공간을 남북으로 분리해서 사용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마을의 입구, 거주, 놀이 공간 등이 씨족에 따라 확실하게 분할되어 있다. 또한 1950년대 사진을 보면 박씨 거주지에 기와집이 2채 보인다. 소수이지만 박씨들은 마을에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자료수집 및 분석

개인의 사고를 살펴보는 방법은 그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사고를 추론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거주민들의 내부자적 관점을 취하는 인류학적 연구방법이다. 인류학에서는 오랫동안 외부자가 내부자들의 관점에 최대한 접근하기 위해 3E(Experiencing: 참여관찰, Enquiring: 심층면담, Examining: 현지자료조사)를 사용해왔다.

본 연구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약 1년간 인류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연구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시 속 자연마을을 찾기 위해 광주광역시에 존재하는 자연마을을 찾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광주광역시 자연마을은 사라졌거나 기존의 형태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만들어졌다(박상범, 2003; 박정주, 2009). 이에 비해 광주광역시와 나주, 화순, 담양, 장성 등과 경계지역에 위치한 자연마을은 옛 모습을 간직한 채 일부 존재하였다(나주용, 2012). 그 자연마을 중에서 비교적 도시의 중심지와 가장 가까우면서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마을이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에 위치한 노대마을이다.

둘째, 노대마을과 관련된 자료를 찾기 시작하였다. 국가기록원,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남구청 등에서 노대마을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하지만 연구자가 기대한 만큼 다양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마을의 자료수집은 대부분 거주민들의 구술사에 의존하였다.

셋째, 참여관찰은 코로나 19로 인해 노대마을의 당산

제, 마을 노래한마당, 마을공동체모임 등이 축소되거나 사라졌다. 더욱이 마을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마을회관이 폐쇄됨으로써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와 참여모습을 관찰할 수 없었다.

넷째, 연구자는 파일럿 조사를 위해 마을을 돌아다녔다. 그때 만난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연구의사를 밝히고 면담 참여를 부탁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마을주민이 60대 이상이었던 때문에 코로나 19 상황에서 낯설은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극히 꺼려 했다. 우여곡절 끝에 만난 첫 번째 참여자가 윤□□씨였다. 윤□□씨와 면담은 총2회 이루어졌는데 1회 면담은 1차로 근처의 커피숍에서 진행되었다. 2차는 연구자와 참여자가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만난 두 번째 참여자가 함안윤씨의 종가집에 살고 있는 윤△△씨였다. 윤△△씨와 1회 면담은 1차로 함안윤씨 종가집에서 했으며 2차 면담은 기존과 동일하게 마을을 돌아다녔다. 윤□□, 윤△△씨와 면담을 통해서 마을이 윤씨, 김씨를 위주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김씨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성이 있었다. 그들로부터 현재 마을의 동장인 김○○씨를 만났다. 김○○씨와 1회 면담은 1차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루어졌고 2차는 폐쇄된 마을회관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가 노대마을 거주민의 장소감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주기간에 따른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지만 마을에는 젊은 층이 없었다. 다행히 면담자들에게 의해 마을의 유일한 초등학생인 김유빈 학생을 만날 수 있었다. 김유빈학생과의 면담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만남 때 마다 부모님께 동의를 구하였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면담을 하게 된 참여자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면담은 연구참여자와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각각의 장소에 대한 자신의 생각, 경험 등을 주고 받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을 하면서 더 풀리지 않은 궁금증은 추후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

표 1. 면담 참여자 특성

이름	나이	거주기간	씨족	면담횟수	기타
김유빈	12세	12년	김해 김씨	4회	○○초 학생
윤△△	70대	약 70년	함안 윤씨	2회	함안 윤씨 종손
윤□□	60대	약 60년	함안 윤씨	2회	마을 주민
김○○	60대	약 40년	김해 김씨	2회	현재 통장

표 2. 면담 항목

초등학생	어른들
노대마을에 대한 간단한 소개, 역사	노대마을 역사, 지리 등 마을 소개
하루의 일상	마을의 유교적 경관, 자연 지형 등 소개
마을에 애착이 가는 곳, 싫어하는 곳	어릴 때 놀이공간 소개
여러 경관에 대한 생각	마을에 애착이 가는 곳, 혐오스러운 곳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	마을의 공동체 조직
통학로	오랫동안 존재해온 마을의 갈등요소
가족관계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인식
학교생활	앞으로 세대에게 바라는 것

해 방역지침이 수시로 변경됨으로서 면담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질 수 없었다. 자료수집과 면담, 참여관찰은 선형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비선형적으로 수시로 이루어졌다.

분석은 참여관찰, 면담, 현지자료조사 등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들을 연구자가 주제별 분류작업을 진행했다. 분석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수집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마을에 대한 거주민의 경험을 연구자가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둘째, 각각의 자료에 년도, 횟수에 따라 부호화한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마을의 변천과 그들의 경험을 타임라인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어른들과 초등학생이 마을의 경관에 대한 장소감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장소감이 같은 장소와 다른 장소로 나누어 최종 분석하였다. 이후 글쓰기는 과거(어른들)와 현재(초등학생)의 한 장소에 대한 거주민의 다른 장소감을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마을의 정체성을 역사지리적 관점에서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장소감을 두드러지게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든 연구과정은 직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석학적 순환과정(interpretive cycle)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초기에 가졌던 연구자의 관점을 변화시키기도 하였고 연구결과에 대한 총체적이고 심도 깊은 반성적 성찰을 할 수 있었다.<sup>5)</sup>

### III. 연구결과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들어있다(박연규, 2016). 동일한 장소에서도 개인

이 느끼는 장소감은 다르다. 다음은 노대마을에 거주하는 어른들과 초등학생이 마을의 여러 장소에서 가진 경험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마을의 변천과정을 파악하고 각각의 장소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 1. 차이가 나는 장소

### 1) 길

이동공간은 크게 주거공간 내의 안길, 주거공간에서 마을입구까지의 진입길, 마을입구로부터 다른 마을을 이어주는 외부도로인 큰 길로 나뉜다. 모든 길은 자연지세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집의 위상, 집들 간의 관계, 마을 상징물의 위치, 경작지의 영역 등에 의하여 다양한 길의 모습이 형성된다(김기덕, 2019). 노대마을에는 아주 작은 공간인데도 상당히 많은 길이 있다. 현재 노대마을의 길은 1길-5길의 골목길,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마을 앞 큰길로 나누어진다. 노대마을 1길은 가장 먼저 만들어진 길로 윤씨들이 다니던 길이다. 노대 1길 앞에는 당산나무가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1길은 경사가 많이 있고 2, 3길은 1길 만큼 경사가 있지 않다. 노대 2길, 노대 3길은 김씨들이 많이 다니던 길로 현재 당산나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노대 3길은 김씨들과 박씨, 윤씨들이 연결되는 통로이다. 노대 4길은 경작지와 주거지를 분리하는 길이며 과거 사진을 보면 논과 가장 접해 있는 곳이다. 사람이나 우마의 통행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형이다. 전체적으로 1, 2, 3길은 산록완사면에 위치한 마을의 특성상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높은 곳으로 길이 나왔다. 기존의 길들이 낮은 곳에서 뒷산을 향해있다면 4, 5길은 수평적인 성격을 띠





그림 6. 2020년 노대마을 위성사진에 나타난 길과 1973년 노대마을 1길

출처 : 구글위성사진에 노대마을 길 표시(좌); 광주광역시 시청각자료실(우).

고 있다. 1길, 4길은 마을의 바깥길에 해당하며 2, 3, 5길은 마을의 안길에 해당한다. 이러한 노대마을 대부분의 길은 토목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조선시대에 형성되었으며 자연환경에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1) 어른들: 만남, 놀이의 장소**

어른들은 어렸을 때 노대마을의 길에서 많이 놀았다. 윤씨들은 마을 어귀인 노대 1길에서 주로 썰매를 타고 슬래잡기 등의 놀이를 했다. 그에 비해 김씨들은 마을 어귀인 현 당산나무의 공터에서 자치기, 팽이돌리기 등의 놀이를 했다. 산골마을의 특성상 넓은 공터는 마을 어귀에 있었고 마을어귀에는 당산나무가 있었다. 비교적 넓은 장소인 당산나무 앞의 길과 동네의 골목길은 다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고 놀이터였다.

**(2) 초등학생: 귀찮은 장소**

유빈이<sup>9)</sup>는 어른들처럼 노대 3길을 중심으로 앞마을, 뒷마을로 분리하지 않는다. 터널이 생기고 나서 만들어진 마을 앞의 큰 도로를 기준으로 상업시설이 있는 곳을 앞마을이라 부른다. 또한 큰 도로와 떨어져 마을 깊숙이 있는 곳을 뒷마을이라고 한다. 따라서 마을의 골목길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 학교에 갈 때, 엄마와 함께 마을을 산책할 때는 주로 노대 5길을 이용한다. 노대 1길은 통

하도로 이용한다. 그의 길은 별로 다녀본 적이 없다.

길이 엄청 좁아서 차가 들어가기 힘들다. 여기 집이 있고 까만색 집이 있고 대충 이렇게 생긴집이 있고 거기서 앞으로 쪽 가서 내려가고 앞으로 가면 내리막길이 있다. 갈래길도 보인다. 엄청랑 운동삼아서 돌아다닌다. 전체적으로 마을 길을 돌아다녀본 적은 한번도 없다. 주로 몇 군데만 간다. 쌍교갈 때, 고깃집 갈 때, 학교갈 때 주로 마을길을 이용한다.

(2020년 10월 14일 김유빈)

마을 앞의 큰 도로가 있는 곳까지는 차가 다니지만 1길을 제외한 다른 길은 너무 좁아서 차가 다니기 힘들다. 보통은 엄마가 차를 이용하여 마을 앞 큰 도로를 이용하여 학교까지 데려다 주지만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올때는 무거운 가방을 메고 혼자 걸어온다. 유빈이는 마을에 비탈진 도로가 있어서 귀찮아한다. 겨울에는 얼고, 비탈져서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하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다.

올라가는 길이 멀어서 무거운 건 빼고 가야 한다. 많은 것을 들고 가면 힘들다. 경사가 있어서 짜증난다. 경사가 있어서 무거운 것 들면 더 힘들다.

(2020년 11월 03일 김유빈)

## 2) 집

집의 배치는 자연공간의 경사도와 관계가 깊다. 뒷산 경사가 완만하면 집을 산에 가깝게 붙이고, 급하면 산에서 거리를 두어 위치시킴으로써 산사태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였다(김기덕, 2019). 노대마을은 뒷산 경사가 완만하여 집들이 산과 가깝게 붙어 있다.

집촌의 경우와 달리 산촌 경관의 특징은 개별 가옥과 그 경지가 공간적, 기능적으로 서로 밀착되어 있다는 점, 곳곳에 삼림지가 섬처럼 잔존해 분포한다는 점, 완사면 혹은 구릉성 지형이 우세한 지역에서 주로 확인된다는 점이다(이준선 등, 2011). 노대마을의 집들은 산촌 경관의 전형적인 특징인 집들 간의 간격이 아주 좁다. 대부분의 집들은 초가집의 형태였다가 1970년대 새마을 운동에 의해 기와집의 형태로 바뀌었다. 각각의 집들은 씨족 공동체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배치되었다.

### (1) 어른들: 교육의 장소

과거 집들은 아주 조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웃집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은 마을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씨족공동체로 이루어진 공간에서 유교적 전통은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노대마을에는 마을 1길이 끝나는 지점에 윤씨 종가집이 있다. 종가집에는 사랑방, 안방, 제실 등의 기와집이 5채 있었으나 현재는 안채와 제실만 남아있다. 종가집은 마을 안쪽에 있으며 마을의 위쪽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보는 형식으로 위치한다.<sup>7)</sup>

1994년도에 목수들 데리고 와서 다시 집을 지었다. 그때 기존의 집을 허물었다. 사당채 하나만 놔두고 다시 지었다. 밑에 건물이 사랑채였는데 선비들이 많이 왔다가 머물곤 하였다. 우리 조부님 호가 죽하이시다. 광주향교에 많이 출입을 하셨고 향교 건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셨다.

(2020년 09월 24일 윤△△)

종가집 뿐만 아니라 많은 옛날 마을의 집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 형제자매들이 함께 아이의 교육을 맡았다. 자연스럽게 함께 살면서 교육이 이루어졌다. 집안에서 아이가 잘못을 하면 가정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엄하게 다스렸다.

어렸을 때 고기반찬이 나와서 할아버지 드시기 전에 제

가 먼저 먹었는데 고모님께 혼이 난적이 있다. 그때부터 손님들이 와도 음식 먹는데 조심하게 된다.

(2020년 11월 20일 윤□□)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서 자고 그랬다. 할아버지가 훌륭하신 학자셔서 할아버지에게 많이 배웠다. 그때 당시 할아버지께서 공부하시던 책을 서울에 있는 박물관에 기증하셨다.

(2020년 09월 24일 윤△△)

### (2) 초등학생: 경계의 장소

노대마을의 길은 1970년대 새마을 운동으로 과거 지개를 지고 다니던 좁은 길에서 리어카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확장되었다. 현재는 기존의 집들이 많이 사라지고 집들간(間)에 예전처럼 왕래가 많지 않다. 가정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대부분의 교육이 이제는 학교와 학원이 책임지고 있다. 유빈이는 학교가 끝나면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 앞 학원에 다닌다. 학원이 끝나면 다른 친구들보다 먼 거리에 있는 집까지 걸어오거나 학원차를 타고 온다. 집에 오면 주로 게임을 많이 한다. 게임을 하다가 아버지께 혼나기도 한다. 유빈이가 마을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장소는 집주위이다. 집밖을 나서면 낯설은 사람들이 돌아다닌다. 최근에 마을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등산객, 부동산업자 등이 돌아다닌다. 유빈이에게 집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장소이지만 한 발짝만 나서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낯익지만 낯설은 공간이 된다.

유빈이는 집에서 강아지와 닭, 토끼와 논다. 집밖에는 잘 나가지 않는다. 집밖으로 나갈 때는 아빠의 차가 세워진 조그마한 공터에서 동물들과 논다.

차 없을 때 여기서 풀 뜯어 돌로 찢고 소꿉놀이 해요.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놀다가 떨어지기도 해요. 여기 위에 친구가 있었는데 이사 가버렸어요.

(2020년 10월 14일 김유빈)

마을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는 우리집 안마당이다. 강아지도 있고 토끼도 있고 닭도 있고 아빠가 어딜 다니지 못하게 한다.

(2020년 11월 03일 김유빈)



그림 7. 김유빈의 집과 집 앞 놀이터

출처 : 2020년 10월 김유빈 촬영.

### 3) 논, 밭

가장 좋은 토지는 ‘문전옥답’이라는 표현처럼 본래 주거공간과 생업공간은 가까이 있을수록 좋다. 생업공간의 기본은 주거공간의 연장선에서 시작한다. 대부분의 농촌마을은 마을의 자연공간을 구성하는 뒷산과 좌우산(左右山)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를 중심으로 농경지가 펼쳐진다. 그러나 마을 인구가 증가하거나 인간 능력이 확장될수록 생업공간은 마을의 경계를 넘어서게 된다(김기덕, 2019). 노대마을은 석림촌에서 시작하여 마을 앞, 현재 휴면시아 5단지 앞까지 논과 밭을 넓혀갔다.

우리나라 산촌에는 1960년대 이후로서 수리시설의 확충에 힘입어 밭이 논으로 전환되면서 수전 경관이 전개되었다(이준선 등, 2011). 1970년대 초 노대남제가 생기기 전까지 노대마을의 대부분은 밭농사를 하였다. 따라서 수박과 참외를 많이 재배했다. 수박과 참외를 사가기 위해 양동시장에서 자전거와 리어카를 가지고 장사꾼들이 오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밭농사를 통해서 경제적 소득을 얻었다. 하지만 밭농사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주식인 쌀을 제공하여 주지 않는다. 이로 인해 1960년대 말에 노대남제가 생기으로써 마을 앞 저지대를 중심으로 수전경관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졌다.

#### (1) 어른들: 소득원으로서의 장소

노대마을은 산(山)이 가까이 있어 빨갭과 건축자재 확보, 나물채취 등을 쉽게 할 수 있었다. 근대화하기 전에 빨갭은 대부분의 전력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아주 중요하였다. 이로 인해 빨갭은 경제적으로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빨갭은 주요

소득원이 될 수 없다. 산골짜기에 위치한 자연환경은 소득원의 확대를 위해 밭과 논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이러한 토지 이용의 전환과정에서 경지는 구획 정리되어 규칙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고 직선상의 관개수로와 더불어 규격화된 경관을 탄생시켰다(이준선 등, 2011). 노대마을의 토지는 일정하게 규격화되었고 마을 앞 관개수로가 생겼다. 노대제 앞의 일부 토지만 논으로 사용하던 곳이 노대남제가 생기으로써 논 농사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노대마을 사람들은 풍부한 물을 이용하여 구암마을과 노대마을 중간 부분에 있는 들판과 효덕제가 있는 현재 진남중학교 앞까지 논농사를 하였다.

마을 앞 산은 거의 윤씨 소유였다. 현재 7단지 논도 내가 소유했다. 6단지 앞 논도 내 소유였다.

(2020년 09월 24일 윤△△)

건강타운 들은 온통 참외를 심어서 누렸다. 퇴비를 가져다가 인분을 엄청 실어다 날랐다. 인분을 퇴비와 섞어서 햇빛에 낸다. 뒤집고를 몇 번 해서 거름을 만들어서 수박 밭에 뿌린다. 여기는 토질이 안좋아서 거름을 많이 했다. 우리 마을에도 참외수박 엄청 심었다.

(2020년 11월 20일 윤□□)

초등학교 다닐 때 여기 공터에서 간이 시장이 있었어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60년쯤인데 그 모습을 많이 봤다. 노대남제가 60년대 후반에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논농사를 많이 했다.

(2020년 12월 28일 김○○)

1990년대 말 철구재를 넘어서 화순군 도곡면에 위치한 도곡온천을 건너가기 위해 터널을 뚫었다. 그리고 물길을 막고 왕복 2차선의 큰 도로를 만들었다. 이로 인해 물길은 막히고 다시 밭농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2010년 초에 밭농사를 하던 곳은 아파트로 변하고 현재 노대마을 사람들의 주요한 소득원이었던 논밭은 사라졌다.

**(2) 초등학생: 만남의 장소(할머니들)**

2010년 이후 마을 바로 앞에 아파트들이 들어섰다. 이후 건강타운, 새로운 주택단지, 상업시설 등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유빈이는 성장하면서 어른들처럼 많은 논과 밭을 보지 못했다. 기껏해야 마을 입구 쪽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밭농사를 하는 것을 본 것이 전부이다. 할머니들이 밭에서 일하다 유빈이를 보면 반갑게 맞이해준다.<sup>8)</sup> 마을에서 유일한 초등학생이라 할머니들은 유빈이를 잘 알고 있다. 또한 유빈이는 할머니와 오래 살아서 동네 할머니들을 좋아한다. 이처럼 유빈이가 할머니들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곳은 동네에 위치한 밭이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다. 할머니들이 과자를 많이 주신다. 할머니들이 화순 가는 쪽에 보면 작은 밭, 마을 앞에 밭이 있다. 반갑게 대해준다.

(2020년 11월 03일 김유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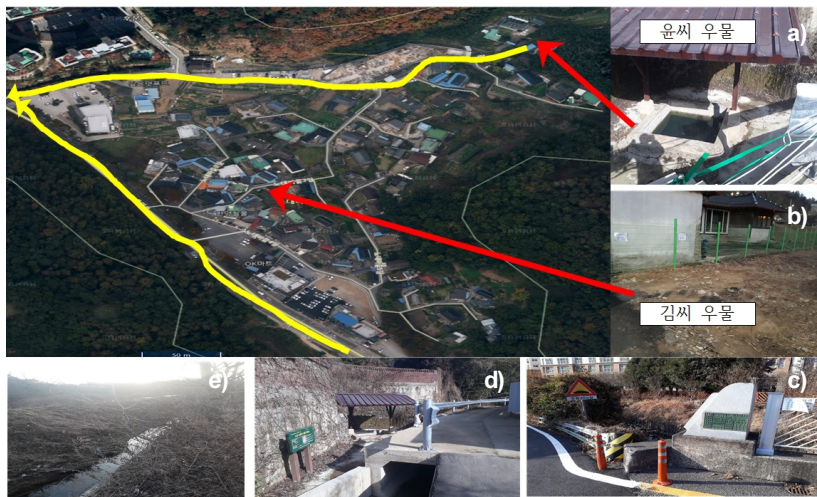
할머니랑 같이 마을회관에 간적도 있어요. 할머니가 우리집 주인이에요. 저희는 할머니집에 얹혀 사는 것이예요.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해요.

(2020년 10월 14일 김유빈)

**4) 우물, 하천, 저수지**

마을에 있어서 물은 생존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 교감과 치유적인 역할과 함께 역동적인 이미지를 만들기도 한다(정용훈, 2010). 노대마을의 물경관은 마을 사람들이 마시던 우물과 마을 주위를 감싸면서 흐르는 하천, 마을 밖에 있던 저수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마시던 우물은 마을 안에 위치한다. 윤씨들의 우물은 마을의 뒷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고여서 만들어졌다. 지금은 윤씨 종가집 옆에 있다. 몇 년전에는 남구청에서 셋강살리기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폼뿔을 붙여 놓았다. 그 물은 만오정<sup>9)</sup> 앞의 만오정다리 밑을 건너서 노인건강타운 쪽으로 흐른다. 현재 도로가로 흐르는 물은 철구재 쪽에서 흘러나온 물이다. 수박골에서 물이 고여서 노대남제를 만들고 마을 옆을 흐르고 있었다. 주로 이곳에서 어린이들이 물장구를 치고 놀았으며 여자들은 노대남제 근처의 골짜기 물을 이용하여 여름철 더위를 식히곤 하였다. 김씨들이 먹던 우물은 본래 노대남제 근처에 있었으나 너무 멀어서 마을 중심부에 우물을 2군데 만들었다. 지금은 우물이 있던 집을 외지인이 매입한 후 우물



**그림 8.** 마을의 물길 및 물경관들

출처 : 2020년 10월 저자 촬영 - 마을의 위성사진에 물경관의 위치를 화살표로 표시.

\* a) 현재 윤씨들 우물, b) 사라진 김씨들 우물터, c) 만오정 다리밑 하천, d) 종가집 옆을 지나는 하천, e) 마을 뒤의 하천



**그림 9.** 만오정 앞 하천과 물빛공원으로 바뀐 노대제

출처 : 2020년 11월 저자 촬영(좌); 2020년 3월 저자 촬영(우).

을 메워서 사라졌다.

마을 밖에 있던 저수지는 노대제, 노대남제, 효덕제, 마을 위쪽의 작은 저수지로 나누어진다. 작은 공간에 저수지가 4개나 있을 정도로 노대마을은 논농사를 활발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마을에서 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했고 가끔씩 물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처럼 물은 시골마을에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 (1) 어른들: 농사 도움을 주는 장소

산골짜기 마을사람들은 충분한 토지가 없기 때문에 산을 개간(開墾)하여 농토를 넓혀갔다. 그래서 수박골의 지도를 보면 산을 개간한 흔적이 나타난다. 노대마을 위쪽에도 산을 개간한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러한 밭은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에 의해서 논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산록완사면에 있는 밭은 일종의 다랭이 논과 같은 경관을 나타낸다. 작은 하천과 저수지는 농사를 짓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현재 마을 앞 도로는 과거 큰 개천이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수영을 하기도 하였다. 그곳의 물로 인해 마을 앞은 논이 만들어졌다. 어른들은 물길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그것을 통해서 일정한 소득을 얻었다.

마을의 우물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하다. 윤씨들은 분적산의 물줄기 시작부분에 우물을 만들었다. 김씨들은 수박골에서 물을 길러왔다. 많은 사람들이 김씨들의 공간에 살면서부터 김씨들의 우물은 마을 중앙으로 이동하였다.

#### (2) 초등학생: 통학로(路)로서 장소

현재의 노대마을에는 과거의 물과 관련된 경관은 많은 부분 사라졌다. 상수도의 설치로 유빈이의 실생활에서 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통학로에서 자주 보는 마을 1길의 토랑은 그 수량이 아주 적어서 유빈이에게 하천으로 와닿지도 않는다.

노대제, 노대남제, 효덕제, 마을 뒤쪽의 작은 저수지 중에서 유빈이가 유일하게 자주 보는 곳은 노대제이다. 노대제는 농사를 위해 있던 곳에서 지금은 지역주민들에게 휴식의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 이름도 물빛근린공원으로 변경되었다. 유빈이는 학교를 할 때 학교 앞을 출발하여 물빛근린공원을 돌아서 만오정 다리를 건넌다. 이후 마을 1길을 걸어서 집으로 온다. 그 옆에는 분적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흐른다. 유빈이는 물경관에 대해서 잘 모른다. 가끔씩 고급주택에서 오염된 물이 내려오는 것과 홍수때 물이 넘치는 것을 볼 뿐이다.

#### 5) 꺼리는 장소

종교는 오랫동안 우리 생활에 침투되어 신성시되었다. 씨족 공동체로 맺어진 시골 마을은 유교적 전통에 의한 공간이 많이 있다.<sup>10)</sup> 함안 윤씨는 일찍이 마을 위쪽에 제실을 설치하고 선향을 배향하였다. 제실은 1968년에 와서 정면 4칸 측면 1칸의 평기와 팔작지붕으로 양개제라는 명칭으로 세워졌다. 이후 이곳은 송화마을커뮤니티로 바뀌고 함안 윤씨 제실은 2010년 구암마을 쪽에 새롭게 만들어졌다.

김해 김씨 제실은 마을 뒤쪽에 있었으나 1958년에 노



**그림 10.** 과거 양개제와 현재 함안윤씨 제실

출처 : 광주광역시 남구문화원(2002)(좌); 2020년 11월 저자 촬영(우).



**그림 11.** 현재 당산나무와 과거 당산제 모습

출처 : 2020년 6월 저자 촬영(좌); 2020년 12월 마을회관에서 수집(우).

대마을과 구암마을을 끼고 있는 외딴 구릉지대인 행정 구역상으로는 노대동 327번지에 양양재라는 이름으로 지어졌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단층 평기와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다.

노대마을은 매년 정월 대보름에 당산제를 지내고 있는데, 광주권에서 매우 큰 당산으로 알려져 있다. 당산은 안당산과 걸당산, 마을입구의 바깥당산, 그리고 석림촌의 당산바위가 있다. 할머니 당산이라고 전해지는 안당산은 마을 중앙부 골목에 있었으나 1970년대 새마을 운동에 의해 없어졌다. 할아버지 당산이라 불리우는 걸당산은 마을 1길 앞에 있던 당산나무 아래에 있는 높이 70cm의 선바위<sup>11)</sup>이다. 바깥당산은 마을의 첫들머리 종정리라는 곳의 현재 팽나무이다. 석림촌의 당산바위는 지석묘 7기 중의 2기이다. 이곳은 명이 짧은 자녀들을

‘당산바위’에 팔고 치성을 드리는 등 개인적인 신앙터로 이용되었다(광주광역시 남구문화원, 2002).

노대마을은 함안 윤씨와 김해 김씨가 주축이 되어 마을이 형성되었다. 마을 안팎에는 제실, 입향조 비석 등의 유교적 경관과 당산나무, 마을 숲, 입석 등의 민속종교 경관이 함께 있다. 이로 인해 유교적 규율과 민간신앙이 뿌리 깊게 존재했다. 이는 마을에 잠시 있었던 작은 교회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갔다는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옛날 어머니들이 아침일찍 일어나서 수박골 근처에 깨끗한 물을 받아서 아들 낳아 주라고 빌고 그랬다.

(2020년 12월 28일 김○○)



그림 12. 김유빈의 무서운 장소

출처 : 2020년 11월 김유빈 촬영.

유빈이네 건너편에 가정집의 형태로 교회가 있었다. 사람들이 교회 별로 안다녔다. 유교사상이 많았다. 지금은 구암에 있다. 그쪽으로 간지 얼마 안되었다.

(2020년 11월 20일 윤□□)

### (1) 어른: 제실, 당산나무

제실은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당산나무 또한 마을의 수호신으로 함부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제관이 되면 한 달 전부터 몸을 정갈이 하고 화장실을 다녀와서도 손발을 깨끗이 씻었다. 마을의 제실과 당산나무, 선바위 등은 일종의 금기된 장소였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 금기된 장소를 한번 씩 가보고 싶어 한다. 이로 인해 과거 어른들한테 걸려서 혼나기도 한 추억을 지금의 어른들은 가지고 있다.

옛날에 제실에서 물레 놓고 그랬다. 어른들한테 걸려서 혼나고 그랬다. 재관으로 뽑히면 1주일간 따로 생활했다.

(2020년 09월 24일 윤△△)

당산나무 근처에서 많이 놀았다. 한번씩 당산제를 지낼 때면 못가게 했다.

(2020년 11월 20일 윤□□)

### (2) 초등학생: 깜깜한 집, 무서운 장소

마을 사람들이 집을 놔둔채 도시로 이주하였고 도시 사람들은 살지도 않으면서 집을 매입하였다. 이로 인해 마을은 빈집이 많이 늘었다. 유빈이는 마을에 빈집이 많아지자 밤에 불이 꺼지는 것에 대해 무서워했다. 얼마

전까지도 옆집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으로 바뀐 곳이 많이 있다. 예전에는 가로등이 밝았는데 근래에는 가끔씩 꺼지는 가로등 때문에 이곳을 지날 때면 무섭다.

제일 무서운 곳은 깜깜한 집이다. 귀신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가로등에 불이 꺼질때가 제일 무섭다.

(2020년 10월 14일 김유빈)

## 2. 공통적인 장소

현재 마을의 입구는 마을회관이 있는 마트건물이다. 마트는 마을에서 임대를 주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마을회관 공터에 주차를 하고 집으로 들어간다. 마을 입구 쪽은 이미 카페와 음식점들이 들어와 있다. 마을 안쪽으로는 새로운 타운하우스, 도시형 개인주택이 들어와 있다. 예전에는 윤씨, 김씨들이 씨족공동체에 의해 마을 공간이 분리되었다면 이제는 큰 도로 앞의 상업시설과 거주민들의 공간이 경제적 관계로 분리되어 있다. 어른들과 유빈이는 동일하게 새로 들어온 가게와 집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어른들은 마을에 음식점이 들어와서 고기냄새가 마을 전체로 진동한다고 하였다. 습도가 낮으면 숯불에 돼지고기 굽는 냄새가 마을 앞을 진동한다. 마을 한 가운데 백숙집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에 더 많은 음식점이나 카페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하였다.

노대마을 갈비집 등 마을 앞에는 식당만 들어온다. 그쪽



그림 13. 새로운 건물들

출처 : 2020년 9월 저자 촬영.

에 있는 사람들은 기름냄새가 많이 난다. 마을에 내가 모르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왔다. 우리 집옆에도 10억이 넘는 집으로 중부세를 낸다. 가끔씩 쓰레기를 버려서 내가 뭐라고 한다.

(2020년 09월 24일 윤△△)

유빈이도 집이 없어지고 마을 뒤에 등산로가 생기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 낯선 사람들이 함부로 자기 집 앞까지 다니기 때문에 예전 처럼 집 앞을 자유롭게 다닐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부모님은 유빈이가 혼자 집 밖에 나가는 것을 싫어한다.

1) 새로 지은 집: 낯선 사람들의 장소

마을에는 기존에 있던 집들이 하나둘씩 없어지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 마을 집값이 개발화로 인해 비싸졌기 때문이다. 오래된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집을 쉽게 처분하지 못한다. 대지의 면적이 좁기 때문에 자신들의 집을 팔아서 근처의 아파트로 들어가기 쉽지가 않다. 하지만 최근에는 땅값이 폭등하여 사람들이 하나둘씩 마을을 빠져나가고 있다. 많은 원주민들이 노대마을을 떠났고, 그들이 떠난 자리를 부동산업자, 상인들이 채워나가고 있다. 마을의 집을 매입한 사람들은 인근의 아파트에 거주지를 두고 노대마을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토지를 이용해 농사를 지으면서 소득을 가졌던 사람들이 토지가 없게 되니 일정한 소득 창출의 요소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마을에서 젊은 층들을 보기 힘들어지게 되었다. 70호 가구 중에 초등학생은 유빈이가 유일하다.

내가 마을 소식을 나누어주려고 낮에 돌아다니면 사람들 만나기가 힘들다. 얼마전에 입학통지서 나누어주러 갔는데 우리 마을에는 한명도 없고 신기마을에 몇 명 있었다.

(2020년 12년 28일 김○○)

젊은 사람들이 다 나가버렸다. 당산제 모시고 행사할 때 들어온다. 집을 빈집으로 둘 것이 아니라 새로 집을 지어서 여기서 거주하면 좋겠다.

(2020년 11월 03일 윤△△)

유빈이는 마을의 땅값이 엄청 비싸졌다고 강조를 하였다. 어른들은 마을에 젊은이들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아쉬워 했다. 초등학생이 마을의 땅값에 대해서 이야기 할 정도로 마을은 급속하게 자본화되어 가고 있었다. 토지가격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마을의 집들은 과거의 좁은 공간에 오밀조밀 모여 있던 형태에서 넓은 공간에 화려한 외관을 지닌 집들로 변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유빈이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다. 이처럼 마을의 전통경관은 하나둘씩 사라지고 원주민과 이주민들의 공간은 자본화에 의해 하나 둘씩 분리되고 있다.

새로운 집인데 여기가 좀 싸냐? 와 집 좋다. 부럽다. 새로운 집들이 많이 생겼다. 집값이 아주 비싸졌다. 여기는 서울에 사는 사람 집이다. 방학 때 가끔씩 내려온다.

(2020년 10월 14일 김유빈)





그림 14. 노대1길 앞 주차장과 노대2길 앞 주차장

출처 : 2020년 10월 저자 촬영.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생기고 시골 분위기가 없어졌다. 오염된 시골이다. 마음으로는 아주 싫다. 질투 난다. 맨날 이쁜 집에서 사나깐 질투 난다.

(2020년 10월 14일 김유빈)

## 2) 공용주차장: 갈등의 장소

현재 마을의 문제점은 음식점의 고기냄새, 새로운 거주민들이 만들어 내는 쓰레기 뿐만 아니라 마을이 함께 쓰는 공용주차장의 사용 문제가 있다. 분적산의 등산객들이 마을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상가 사용자들이 마을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작 거주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공용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앞으로 더 많은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마을 주차장에 관한 문제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

등산객이 우리집 근처로 많이 온다. 여기 위에 길 있냐? 등으로 물어본다. 말없이 오는 사람들도 있다. 그냥 대답만 해주고 집에 들어가 버린다.

(2020년 09월 24일 윤△△)

마을 앞에 삼계탕집, 돼지고기집, 소고기집 등이 있다. 주차하는 것 때문에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우르르 몰려와서 공영주차장을 사용해서 문제가 있었다.

(2020년 10월 14일 김유빈)

마을에 많은 상업시설이 있다. 옛날 모습도 다 없어지고 지금처럼 환경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이 생길 것이다.

(2020년 12월 28일 김○○)

## IV. 의미해석 및 제언

### 1. 장소감의 차이를 반영한 지리교육과정과 수업

지리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1단원은 우리고장의 모습을 살펴보고, 다양한 생각과 느낌을 이해함으로써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기르기 위해 설정되었다(교육부, 2021). 이후 3학년 전체 과정은 고장과 관련된 지리, 역사, 일반사회를 학습하게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이때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삶에서 만나는 고장은 전통적 마을 뿐만 아니라 리, 동을 포함하는 행정구역까지를 포함하는 마을을 말한다. 이처럼 학생들은 마을을 공간적 범위로 하여 지리학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유빈이의 사례처럼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마을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 더욱이 마을을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어른들처럼 마을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없다. 과거에 마을에서 어른들의 삶은 공동체와 관련된다. 그러나 현재의 유빈이는 마을에 대해서 애착이 가지만 새로운 사람들에 의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유빈이가 심리적 안정감, 공동체적 의식을 주는 장소는 집 앞이나 집안으로 공간적 범위가 좁아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살펴보면 현재 3학년 교육과정에서 마을에 대한 학습에서 시작하는 사회과교육과정은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마을에서 시작하기 보다는 자신의 집주변을 살펴보고 점차 마을, 지역, 국가로 연결되는 관계적 관점에서 교육과정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교육과정의 수정이 불가능하다면 교

사들은 수업의 동기유발 부분에서 자신의 집 주위의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장소학습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점차적으로 마을, 지역으로 공간적 범위를 확대해 가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김영현(2019)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그는 촌락지역에 사는 초등학교생들의 마을에 대한 장소감이 아파트로 인해 축소되거나 고정 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오늘날 지속적으로 거주유형이 아파트로 변화하는 촌락지역의 학생들 중에는 아파트가 곧 마을이라는 장소감을 가질 수 있음을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수업에서도 이에 대한 교사의 이해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만약 현재처럼 마을에서부터 학습이 전개되려면 시대 변화에 따라 어른들과 초등학교생이 다니는 마을의 장소감 차이를 교사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노대마을의 사례처럼 마을 학습은 어른들의 장소감과 초등학교생의 장소감이 많이 다르다. 어른들의 장소감은 대부분 공동체와 연결된다. 집, 우물, 당산나무 등이 공동체적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초등학교생의 장소감은 개인적 삶과 연관된다. 이로 인해 과거세대와 현재세대간의 공간에 대한 단절이 이루어진다. 노대마을처럼 공간의 단절은 대부분 사람들 간의 심리적 단절로 연결된다. 지리교육에서는 이러한 공간의 단절, 사람들 간의 심리적 단절을 장소라는 매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교과서 속에 과거세대의 장소감과 현재세대의 장소감 차이를 삽입하고 서로간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탐색해보는 것이다. 또한, 마을을 매개하여 어른들과 초등학교생의 직간접적 만남을 지속적으로 갖게 함으로써 서로 간의 장소감을 나누어보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는 것이다. 마을에는 마을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민속문화가 수없이 존재한다. 마을에 있는 민속문화는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며 그들이 땅에서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며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발달해 왔다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하다(이도원, 2004). 또한 그러한 연결은 마을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사라져가는 도시 속 자연마을의 원형을 지리교육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살리는 것은 단순히 그 공간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다. 사라져 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며 마을, 지역,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학습자가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삶의 모습이 가지는 변화를 비교하

고 관련지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나아가 다른 지역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여 그들과 원만하게 의사소통(권정화, 2001; 심광택, 2007)할 수 있는 지리교육의 목표를 충실히 도달하는 과정이다.

## 2.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이 포함된 마을의 장소감 만들기

우리민족은 농경사회의 배경이 되는 마을을 토대로 공동체문화가 형성되었고, 공동체문화 속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공동체는 동질성을 가진 소집단과 동일한 개념으로 문화적 동질성을 지니는가 하면 타인과 일체가 되어 협동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정서적 일체감을 가지며, 일정한 지리적 공간 단위로서 한정된 지역적 집단성을 지닌다(임재해, 2001). 이처럼 노대마을에서는 오랫동안 형성, 전파, 변이과정을 거쳐 마을 공동체문화가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유빈이의 사례처럼 현재는 도시화 됨으로써 개인주의적 문화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도시 속의 개인 소외화를 막기 위해 도시 속에서는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이때 '마을만들기'에서 마을은 전통적인 마을뿐만 아니라 리, 동과 같은 행정구역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간, 장소의 의미가 강하다. '마을만들기'의 마을은 경계, 공간이라는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수용하면서 마을보다는 '만들기'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게 현실이다(서해숙, 2014a). 이로 인해 마을을 이해하는 것은 약화되었다. 하지만 한 장소를 이해한다는 것은 장소에 들어있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다. 각각의 맥락은 그 장소에서 벌어지는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영향을 받기도 한다(Anderson, 2010). 맥락은 시간, 공간, 사람, 제도 등으로 이루어진다. 마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마을의 역사지리적 요소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를 통해 마을 속 사람들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왔고 타지역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장소감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 마을의 문제점, 지역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게 된다.

김민성·윤옥경(2013)은 Relph(1976), Shamai(1991), Lalli(1992)의 장소감 구성요소를 종합하여 장소감의 하위영역으로 인지적 영역(장소에 대한 지식), 정의적 영

역(장소를 향한 애착), 행동적 영역(장소를 위한 실천)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마을에 대한 장소감은 이러한 3요소가 조화롭게 되었을 때 발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의 도시 속 자연마을의 경우 학생들이 인지적 영역(장소에 대한 지식)을 얻기는 상대적으로 역사적 자료가 구축된 서울보다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처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노대마을에 대한 역사지리적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는 살아계신 마을 원로들의 이야기, 생활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독일의 마을만들기 사례를 참조할 만 하다. 독일의 튜비겐대학의 경험문화연구소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해당 마을주민들의 공간, 시간, 그리고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을 파악해야 하고 다음으로 마을의 역사, 마을주민들의 생활 특징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마을만들기사업이 실제로 주민들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마을주민들의 역사적 경험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식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서해숙, 2014b). 이러한 점은 역사지리적 자료가 잘 구축되지 못한 지방에서 새겨볼 만하다.

하지만 현재 마을공동체 만들기에서 마을을 이해하는 방식은 사뭇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마을을 이해하기 보다는 새로운 마을행사를 만들어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권장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마을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그 속에서 숨쉬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있다. 과거는 없고 현재만 있는 마을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다. 하지만 마을공동체가 추구하는 바는 도시화로 인한 개인 소외의 문제점을 주민자치, 서로간의 친밀감 형성 등의 공동체문화로 극복하고자 하는데 있다. 노대마을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마을공동체라는 행사를 만들어 가는 사람은 오랫동안 거주해온 원주민들이 아니라 이주민, 외부인들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측면이 많다. 이런 측면은 장소감의 구성요소 중에서 단순히 행동적 영역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마을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이 갖추어진 원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게 되고 서로 간의 관계가 더욱 소원해지고 있다.

규모, 볼거리, 연행의 기술 등의 외형적인 것으로 귀결되는 마을공동체는 마을 문화에 녹아 있는 주민들의 삶과 역사, 의미 등을 쇠퇴하게 만든다(차철욱 등, 2017; 박양리, 2019). 주민들이 함께 숨쉬고 연대하는 마을공

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과거와 현재의 연결이다. 이를 통해 과거, 현재 사람들의 관계 개선에 치중해야 한다. 현재 노대마을의 어른들이나 유빈이가 말하는 마을의 문제는 외부사람들이 새롭게 들어와서 생기는 문제이다. 서로가 충분한 대화를 하지 않고 외부인들이 내부자의 시각에서 마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간의 불신이 생긴 결과이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아왔던 마을 사람들은 낮익지만 낯설은 공간으로 마을을 인식하게 된다. 유빈이는 이런 낯설은 마을 때문에 집밖에 쉽게 나가지 못하게 된다. 점차적으로 과거, 현재는 서로 고립되어 간다. 그리고 오래된 거주민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면 그 속에 함께 숨쉬던 마을, 지역의 정체성은 함께 사라져 간다.

다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래된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의 연결고리를 통해 마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겪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른들과 아이의 연결고리 층이 튼튼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그 연결고리를 젊은 층이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마을에 젊은 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과거-현재-미래의 삶이 관계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또한 그 연결고리의 시작은 마을의 역사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방의 도시 속 자연마을은 대부분 사라지고 없어짐으로써 마을의 역사를 보관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한 사례가 드물다. 이로 인해 마을의 정체성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마을의 정체성은 역사, 지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마을에 대한 정체성이 생길 때 나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고 지역, 국가,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전개될 수 있다. 따라서 하루 빨리 도시 속 우리주위에 있는 자연마을의 역사지리적 재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처럼 서로 간의 간격을 좁혀가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외부적인 경관만들기, 행사 추진 등을 통해서 서로 간의 만남이 피상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마을공동체는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확률이 높다.

### 3. 장소감을 통한 도시재생의 문제점 해결하기

2000년대에 들어서 도시재생은 쇠퇴한 도시환경을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에서 시대적 화두로 등장했다.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은 2000년대 중반에 낙후된 도심기능의 재활을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박양리, 2019). 예컨대 소규모의 무분별한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난개발, 도심공동화 현상과 교외화 현상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재생사업을 하고자 한다(여옥경, 2009). 그러나 과거의 접근방식은 물리적 환경의 개선에 주안점을 두어 그 효과는 지속되지 못하고, 또 다시 쇠퇴하여 새롭게 지역을 개발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김인선 등, 2010). 이에 따라 많은 지방도시들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을 추진하기도 한다. 전주한옥마을, 군산과 대구, 인천의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김봉석, 2016). 광주광역시에서도 노후화된 도심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전략의 비전, 방향에서는 광주다운 도시재생을 위해 물리, 사회, 경제, 환경 등 다양한 측면의 통합적 접근을 제시하며 이전의 지역별, 단편적 재생을 지양하고 있다(광주광역시, 2016; 2019). 광주광역시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성공한 사례는 대인시장 재생, 양림역사마을 재생, 양동 발산마을 재생 사례가 있다(전경숙, 2020).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그 당시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느꼈을 감정, 다양한 사람들의 상호작용은 소외되고 현재는 카페, 빵집 등 사유화된 다양한 소비경관들이 즐비하다(송하인·홍기대, 2020). 이로 인해 공간의 사유화, 소비화와 상업화, 무장소성의 창출 등으로 공간의 축소 내지 소멸은 사용자의 배제와 차별, 고립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김미영, 2017). 즉 과거의 기억은 해체되어 자본이 구축한 영토에 매몰된 채 ‘잊혀짐’을 강요받는 기억이 될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다. 노대마을 또한 공간의 사유화, 소비화와 상업화가 심해짐으로써 오랫동안 그 곳에 살아왔던 사람들의 차별, 고립의 문제를 겪고 있다. 더욱이 다양한 세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서로간의 문화가 단절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노대마을은 선사시대유적, 대촌천의 발원지, 무등산 수박, 광주에 터를 잡고 있는 동족마을 등의 밝혀지지 않은 다수의 이야기(narrative)를 내포하고 있다.

도시는 단순한 공간(space)이 아니라 장소(place)이다. 처음에는 그냥 땅일 뿐이지만 그곳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고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각종 의미가 담겨진다. 그래서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장소가 바로 도시이다(홍현철·유영준, 2012). 광주광역시는 광주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의, 예, 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

만 이러한 요소는 무형적인 것으로 도시가 가지는 이미지(image)를 보여주기 힘들다. 따라서 도시 속 장소를 통해 그 무형의 요소를 유형의 이미지로 광주사람들에게 제시해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마을에 대한 긍정적인 장소감을 가지고 개인, 광주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다. 그럴 때 노대마을과 같은 도시 속 자연마을은 장소감 만들기를 위한 훌륭한 광주의 자산이 될 수 있다. 그 속에는 광주사람들만의 민속이 있고 광주라는 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narrative)가 있다. 이를 발굴하여 광주만의 자연마을을 만들고 장소감을 통해 개인, 지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광주라는 시공간에서 광주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시공간맥락의 관계적 구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광주라는 도시문화를 함께 공유하면서 생기는 애착과 자긍심은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며, 이러한 구심점 형성이 도시재생을 지속하게 하는 저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의 도시재생은, 노마디즘 삶을 즐기는 현대인을 위한 도시재생방안이다. 노마드들은 장소 진정성을 기반으로, 단절된 과거의 맥락만 연결해주면 현재부터는 스스로 공유하며 계속 만들어가기 때문이다(전경숙, 2020).

## V. 결론

도시는 생성되어 오랜 시간 동안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받으며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 집중의 정도가 도시의 수용한계를 넘게 되면 도시 외곽 지역에 개발 압력을 가중시켜 도시외곽지역에 대한 개발이 촉진된다(한국도시지리학회, 2020). 대한민국의 대부분 지방도시는 조선시대 읍성을 주위로 형성되다가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그 공간적 범위를 넓혀왔다. 구체적으로 도시가 넓혀가는 과정은 도시와 촌락의 경계지역에 있던 자연마을의 소멸부터 시작된다. 자연마을은 행정구역상으로는 도시에 포함되지만 자연발생적 집촌을 통해 한정된 공간의 대면적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면서 개인과 가구의 삶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공간이다. 농산어촌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곳들이 이러한 마을형태를 취하며, 또 전형적인 마을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차철욱 등, 2017). 이러한 자연마을에는 다양한 서사들과 전통, 민속, 의례, 상징물과

문화적 실천들이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다(임재해 등, 2010; 정형호 등, 2014). 하지만 도시외곽지역에 대한 개발이 촉진되면서 자연마을은 점차 사라지고 그 마을에 있던 민속문화 또한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도시 속 자연마을이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에 위치한 노대마을이다.

본 연구는 사라져가는 노대마을의 변천과정을 거주민들의 장소감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른들은 마을에서 공동체적 삶을 살았고 마을의 다양한 경관에 대해 공동체문화와 관련된 추억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에 한명 있는 초등학생은 마을 주민들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으며 친숙한 공간적 범위를 집이나 집 앞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리교육 측면에서 학생의 삶을 반영한 지리교육과정과 수업, 마을의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마을공동체만들기, 도시재생 측면에서 광주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마을 만들기 와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역사지리적 관점에서 사라져가는 지방에 위치한 도시 속 자연마을의 원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였다는 데 그 첫 번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처럼 지방으로 갈수록 지역에 대한 역사적 사료가 적어 마을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이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서 대부분 사료는 구술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구술사는 되로독 빨리 과거의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이 살아계실 때 채집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역사지리적 관점에서 지역을 살펴본 연구는 개인의 정체성,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꼭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어른들과 초등학생의 장소감 비교를 통해 초등지리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코로나 19가 장기화된으로써 사료수집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거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이 보완되어 다양한 지방의 자연마을에 대한 연구가 지리교육측면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註

1) 한국의 농촌을 상세히 관찰하면 농민들의 자족적인 생활권인 동시에 독립적이고 통일된 조직체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집단을 발견할 수 있다. 농민생활의 대부분은 이 집단에서 영위된다. 이와 같은 지연(地緣)

집단이 자연부락이다. 이 자연부락은 마을, 부락과 그 범역이 일치된다(최재석, 1987). 농촌에서는 아직도 부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도시에서는 마을을 사용한다. 본 연구는 도시 속 마을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부락보다는 자연마을을 사용하고자 한다.

- 2) 洞은 ‘같은 물을 쓰는 곳’이라는 의미의 골이며, 이는 곧 작은 유역을 의미한다(이도원, 2004).
- 3) 석림촌은 수박골이라고 하는데 예전부터 무등산 수박을 이곳에서 키웠다고 한다. 다른 지도를 보면 수박골은 노대남계 바로 밑으로 표시되기도한다. 수박골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지도마다 다르다. 지역 주민들의 면담을 통해서 살펴보면 여기를 수박골이라고 하였다. 아직도 작은 집터가 있고 옹기 등 생활용품이 발견되기도 한다고 한다.
- 4) 우리나라 고대지명은 고유어로 불리웠다. 당시에는 우리말을 표기할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의 음과 훈을 빌어 한자를 차용표기했다. 순 우리말로 명명했던 지명이 신라 35대 경덕왕때에 이르러 거국적으로 대대적인 지명변경을 하게 되었다(한국지명학회, 2007). 노대마을에는 선사시대 유적물인 고인돌이 있다. 이를 근거로 추론하여 보면 노대마을은 선사시대때부터 존재할 가망성이 짙다. 이에 따라 순 우리말이 현재 한자어인 노대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 5) 글쓰기 과정에서 논문을 더욱 심도 있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한국지리학회 3분의 심사위원님들 덕분이다.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 6) 독자들의 흥미를 이끌기 위해 어른과 초등학생을 대비시키고자 이하 글에서는 김유민학생을 유빈이라고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글쓰기도 어른들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부분에서는 과거형으로 유빈이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부분에서는 현재형으로 제시하였다.
- 7) 동성마을의 경우 같은 성씨나 파내에서도 혈연상의 상하수직적구조를 반영하여, 종가나 ‘큰집’은 마을의 높은 곳과 안쪽 중심산상에 배열되는 경우가 많다(임재해, 1998).
- 8) 유빈이는 할머니, 부모님과 함께 산다. 어렸을 때부터 유빈이는 할머니와 많은 생활을 해서인지 추억이 많다. 현재 유빈이 할머니는 몸이 많이 안좋

- 다. 유빈이와 마을을 돌아다닐때도 할머니들은 유빈이 할머니에 대한 안부를 많이 물어봤다.
- 9) 만오정은 1902년 윤하겸의 아들 희진, 희성이 부친께서 빈객이 찾아와도 접대할 곳이 없음을 노상스럽게 여겨 그의 자손이 건립하였다(광주광역시 시청각자료실, [http://gjarchive.kr/p\\_view/33215](http://gjarchive.kr/p_view/33215)).
- 10) 유교적 혈연 공동체의 산물로는 마을의 뒤 중앙에 모시는 사당이 대표적이다. 같은 성씨로 구성된 동성마을의 묘지 공간은 집단 제사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제의공간으로 기능한다(김기덕, 2019). 함안 윤씨의 사당과 종가집 뒤의 산에는 묘지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 11) 입석은 대부분 자연석을 수직으로 땅에 세워 놓는다. 주로 인공에 의해 세워진 높이 1-2m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입석이 가지는 기능은 첫째, 풍수설에 근거한 비보적 기능이다. 둘째는 종교적 기능으로 마을의 제를 모시거나 혹은 입석 자체를 신으로 상정하여 모시는 경우이다(이인화, 2006). 노대마을 입석은 칠구재 터널을 만들면서 없어졌다.

### 참고문헌

교육부, 2021, 「사회 3-1 교사용 지도서」, 서울: 지학사.

광주광역시, 2016, 「202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광주광역시, 2019, 「2025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요약보고서」.

광주광역시 남구문화원 2002, 「광주 남구마을지」, 광주: 라이프기획.

김기덕, 2019, “한국전통마을의 공간구성 재론” 역사민속학, 57, 197-228.

권정화, 2001, “부분과 전체-근대지역지리방법론 고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7(4), 81-92.

김미영, 2017, “현대 공공공간의 새로운 가능성 고찰” 한국지리학회지, 6(3), 455-463.

김민성·윤옥경, 2013, “장소감 측정도구의 개발과 적용: 초등학생의 성별차이를 사례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1(2), 17-28.

김봉석, 2016, “지속가능발전교육 모델로서 전주한옥마을의 적합성 모색” 학습지중심교과교육연구, 16(1), 595-614.

김인선·김영실·서정훈·최왕돈, 2010, “도시재생을 위한 컬

처노믹스적 접근에 관한 연구: 문래동 특성화지역을 중심으로” 대학건축학회논문집, 26(5), 285-296.

김일두·남상준 2015, “학교 공간에 대한 어린이의 장소감 ‘어린이지리학’의 관점에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3(3), 39-53.

김영현, 2019, “촌락지역 초등학생의 마을 장소감 형성연구: 아파트 거주경험을 중심으로” 학습지중심교과교육연구, 19(20), 15-36.

김혜진, 2018, “서울에 대한 어린이들의 인식비교: 장소감 형성과 관련하여” 학습지중심교과교육연구, 18(22), 957-977.

나주용, 2012, “일제강점기 광주의 행정구역과 지명(동리명)의 변화”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남상준, 2003, “학교교육과정의 지역적 적합성과 사회과 교육과정 지역화의 상보적 관계” 사회과교육연구, 10(1), 1-19.

문병선, 2007, “곡(谷)계 지명 농촌마을의 입지특성과 공간 구조에 관한 연구: 충청북도 괴산군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니은, 2017, “마을탐사활동을 통한 장소감의 발달특성” 사회과교육연구, 24(3), 115-130.

박명화, 2017, “일상공간에서의 어린이 장소감: 정서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병철, 2004, “지명어의 한역화 유형에 관한 연구” 구결연구, 13, 5-33.

박상범, 2003, “상무대 이전지역 농촌마을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양리, 2019, “구술자료를 통해 본 아마동의 마을 정체성 연구” 한국민족문화, 70, 223-250.

박연규, 2016, “장소와 경험, 그리고 ‘동네 인문학’” 시민인문학, 31, 135-157.

박정주, 2009, “거주민의 삶을 통해 본 학 팔거리 장소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해숙, 2014a, “마을만들기에서 민속문화의 활용과 활용-광주광역시 북구를 대상으로” 남도문화연구, 27, 237-265.

서해숙, 2014b, “변화와 대응의 관점에서 살펴본 마을공동체 문화의 의미체계” 한국민속학, 59, 65-92.

송하인·홍기대, 2020, “광주광역시 양림동 지역의 공간변화 양상 연구” 한국지리학회지, 9(2), 237-251.

신진동·이우종·이창수, 2008, “입향성격 및 시기에 따른 전통마을 입지특성연구” 국토계획, 43(1), 7-25.

- 신재철 2008, “정서문해력 발달을 위한 장소학습” 사회과교육연구, 15(4), 149-167.
- 심광택, 2007, 「사회과 지리교실수업과 지역학습」, 서울: 교육과학사.
- 이예지·황희준, 2014, “초등학교 공간에서 학생 발달단계에 따른 장소감 형성 차이에 관한 연구” 교육시설논문지, 21(1), 13-22.
- 여옥경, 2009, “한미도시재생의 사업유형별 전략비교연구” 국토지리학회지, 43(2), 187-202.
- 임재해, 1998, 「마을의 입지와 모듬살이의 공간구성. 기층문화를 통해 본 한국인의 상상체계(상)」, 서울: 민속원.
- 임재해, 2001, “농촌 공동체 문화의 활성화 방향 구성과 실천 과제” 한국민속학, 33(1), 255-297.
- 임재해·배영동·김재호·구미래·이상현·김명자·조정현·윤동환·천혜숙·조희진·김시덕, 2010, 「마을민속 연구의 새 지평」, 서울: 민속원.
- 이도원, 2004, 「전통마을을 경관요소들의 생태적 의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인화, 2006, 「내포지역 마을 제당의 민속지리」, 서울: 민속원.
- 이준선·홍금수·이진·김기현·김덕현·오상학, …, 이기봉, 2011, 「한국역사지리」, 서울: 푸른길.
- 이진, 2011, 「촌락지리학」, 서울: 푸른길.
- 전경숙, 2020, “관계적 접근을 통한 공공성 기반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광주광역시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55(1), 27-42.
- 정일, 2006, “광주 효천2지구 주택건설부지내 광주 노대동유적” 한국신석기연구, 12, 117-124.
- 정용훈, 2010, “광주광역시 물 경관과 주민이 삶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진규, 2014, “아동의 도시지리학과 아동 중심 접근: 고찰 및 성찰” 한국지리학회지, 3(2), 159-174.
- 정형호·김정하·이창언·이용범·권혁희·권봉관, 2014, 「도시마을의 민속문화」, 서울: 민속원.
- 최재석, 1987, “자연부락의 성격과 그 변화” 한국문화인류학, 19, 176-215.
- 차철욱·차윤정·전은희·이동일·양홍숙·변광석·박해광·공윤경, 2017, 「마을연구와 로컬리티」, 서울: 소명출판.
- 한국도시지리학회, 2020, 「도시지리학개론」, 서울: 법문사.
- 한국지명학회, 2007, 「지명학 논문선1: 한국지명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황인, 202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학생의 이주 경험과 장소감”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현철·유영준, 2012, “도시 쇠퇴지역의 경관분석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을 대상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2(1), 77-90.
- Anderson, J., 2010, *Understanding Cultural Geography: Places and Traces*, London: Routledge (이영민·이종희 역, 2013, 「문화·장소·흔적: 문화지리로 세상 읽기」, 파주: 한울).
-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Press(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2005, 「장소와 장소 상실」, 서울: 논형).
- Cresswell, T., 2004, *PLACE: A Short Introduction*, Mladen: Blackwell Pub.
- 광주광역시 시청각자료실, [http://gjarchive.kr/p\\_view/33215](http://gjarchive.kr/p_view/33215)
- 교신 : 송하인, 61745,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60번길 12 진남초등학교 (이메일: songhain@hanmail.net)
- Correspondence : Hain Song, 61745, 60 Bungil 12 Hyo-woo-ro, Nam-gu, Gwangju, Korea, Jinnam Elementary School (Email: songhain@hanmail.net)
- 투고접수일: 2021년 3월 15일  
 심사완료일: 2021년 3월 30일  
 게재확정일: 2021년 4월 9일

